

지상 범석

내 책임 다할때 삶이 환해져"

죽음을 입고, 신발을 쓰고 다니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풍물의 것을 다 착취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풍물이 얼마나 인간보다 착합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선 독재자입니다. 이 독재적인 인간은 얼마 안가서 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은 사상이나 하는 것은 철학을 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환경정리를 올바르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한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고르바초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옛날 어머니들은 아이 많이 낳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라면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낳는 자식들한테 돈·권력·부정을 물려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돈·권력·부정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일을 책임지고 행해야 될 것인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남편에게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잘 시키고 그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와 내 환경과 내 수용,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할 때에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도와 주고, 남편에게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잘 시키고 그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와 내 환경과 내 수용,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할 때에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책임을 다할 때에 내 갈 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 여성답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격동기에 있어서 지구상에 있는 인간 폭발지경에

하고 있습니다. 옛날 대해선사가 황백선사를 찾아갔는데, "제가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네가 법을 배우러 와. 누가?" "제가요." "이놈의 자식 어째서 송장을 끌고 다니느냐." 옛날 서양선사께서는 매일같이 "주인공아"라고 불렀는데 "네"하고 대답을 하였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달마대사께서 아무 미련없이 양무제 곁을 떠나 양자강을 건너 위나라로 갔습니다. 소림사의 조그마한 굴에서 9년간 면벽참선을 했습니다. 당시 위나라에 해기라는 국사가 있었는데, 해기대사는 문무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실에서 살법을 매일 행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해기대사가 방 안에서 경전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어린아이의 메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이 문을 열고 살펴보니, 허공에서 오색광명이 비추면서 "네가 좋은 불법을 알고자 하면 소림굴로 찾아오라." "네." 그 길로 소림굴로 찾아갔습니다. 달마가 해기를 보고,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법을 구하러 왔느냐. 그럼 내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믿는 표시를 해라." 그때 해기대사는 손을 잘랐습니다. 손이 끊어지니 해기대사는 몹시 아팠습니다. "스님, 법은 고사하고 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 마음부터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 아픈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모양·이름 집착하면 본래 마음 몰라

좋은지 곰곰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1억도 못되던 인간이 50억이라는 인구로 늘어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났는가. 고르바초프는 현실에서 미래를 향한 것만 얘기했습니다. 강력히 우리는 인간성을 복귀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인구가 팽창했다는 그 원인을 이야기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불어났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악질 동물인가? 이 세상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윤회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대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 그만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일을 책임지고 행해야 될 것인가. 부모에게 효

있는 위기의 시기에 어떻게 해야만 여성으로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항상 나 자신이 무엇인가부터 찾아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적에 어디서 왔느냐. 죽어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했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일체 내 마음으로 된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유물론에서 물질로써 된 것이 맞는 것인가. 각 종교끼리 논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버리자. 생각으로써 본체를 찾고 우주의 근본을 찾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참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신부나 수녀, 목사들이 참선을 많이

"네", "언제나 남한테 속지 말아라" "네" "주인공아"하고 "나"라는 사람이 대답을 하였는데 어떤 것이 진짜 주인공인가? 광명을 줄 수 있는 사람 옛날 보리달마께서 인도에서 중국에 왔습니다. 달마는 양무제를 만났습니다. 양무제는 달마대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하는 말이, "대사님, 나는 수천 절을 짓고 수많은 스님들에게 가장 상을 비롯하여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공덕이 없소. 겨우같이 텅 빈 자리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모를 뿐입니다."

"그래, 그 아픈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아픈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여 살게되면 내 본래 마음을 모릅니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지 아니했을 때 내 본래 성품으로 돌아옵니다. 본 성품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곱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 마음을 찾는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어머니와 부인, 국민이 되고 올바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마음의 광명을 찾게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서 모든 사람한테서 광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⑥

엔트로피

김성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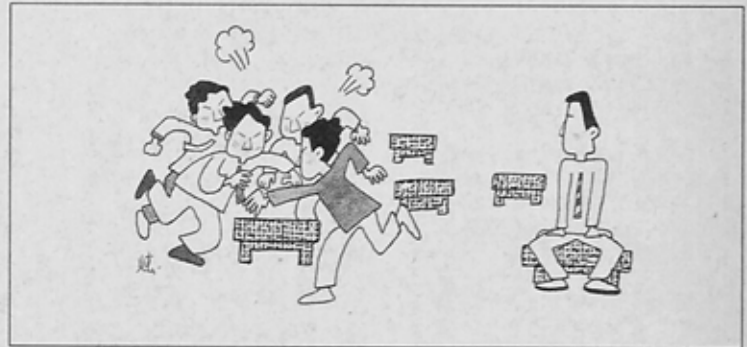
"아저씨, 지구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든 물체와 우주 안에 있는 별들과 행성들의 운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왼쪽으로 돌다가 오른쪽으로 돌기도 하는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에 관한 불확정성은 커진다. 이와 같은 비가역적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양이 바로 엔트로피이다.

고정역학에서 자연현상의 진행방향을 나타내는 양으로 엔트로피가 있다. 뜨거운 물이 식어 차가운 물이 되는 것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주목할 만한 개념이 바로 엔트로피이다. 양자물리가 등장함으로써 '엔트로피'의 개념은 쉬워졌으며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엔트로피'는 어느 정도 막연한가를 나타내는 양으로 막연하면 막연할수록, 많은 가능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엔트로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지리가 10개 있는 대구발 서울형 보통열차의 차표를 산 10사람이 기차에 올라

자연은 보다 확률이 큰 곳으로 옮겨간다. 즉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을 따르며 세상은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 무질서도(度), 혼란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종교나 사회체제는 이 엔트로피의 증가를 최소로 억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과 결혼하여 같이 사는 것을 비교하면 결혼하여 같이 사는 것이 혼란도가 적은 것이다. 그러나 독신으로 살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살때는 어떠한 삶보다도 혼란도가 적으며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는 것이다. 결국 결혼하여 같이 사는 것도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하기 위한 본능이며, 수행자가 홀로 고고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인 것이다. 종교인들이 잘 수행하여 진실한 수행의



돌이킬수 없는 상황 막아야 희망있어

났을때 의자에 앉는 방법의 수는 10!(10 팩토리얼) = 10 x 9 x 8 x ... x 1 = 3,628,800 가지로 10사람을 10자리에 앉힐 때 약 3백6십만 정도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리가 10개 있는 대구발 서울형 보통열차라면 모두가 지정석 이므로 이 경우 10사람이 열차에 올라타 자리에 앉을 때 변화의 가능성은 0이므로 이 경우 엔트로피도 0이 된다. 그러므로 보통열차의 경우 엔트로피는 0이며, 보통열차는 매우 큰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길을 걸어갈 때는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시켜 세상을 복합으로 만들지만, 그릇된 수행으로 수행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때에는 엔트로피를 더 크게하여 세상의 파멸을 가속시킴을 알아야 한다.

엔트로피는 자연현상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되살아나게 할 수 없고, 노인을 다시 젊게 되돌릴 수 없듯이 엔트로피는 자연의 흐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구가 처음 생길때 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수십억년 동안 한번도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며, 물과 포도주를 섞어놓을 수 십억년 동안 지켜보고 있어도 1초도 물과 포도주가 원래대로 분리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물이 들어 있는 컵에 붉은색 잉크를 한방울 떨어뜨려 보자. 그러면 잉크방울은 전 컵으로 확산되어 운동 붉은 물이 된다.

사회 지도자들의 바른 생각과 바른 행위는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시키지만, 그릇된 사리사욕으로 지도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엔트로피를 더 크게 하여 이 사회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변화의 반대현상, 즉 전적으로 확산된 잉크가 다시 한방울의 잉크로 되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한방울의 잉크로 잇기보다는 전적으로 확산되어 있을 때 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은 커지며, 그 때문에 분자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여기에, 정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불화와 이기심이 가득 차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무시되는, 사회윤리가 무너져버려 엔트로피가 매우 큰 사회는 바로 자멸의 것이다.

불자들이여!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으며, 자신은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행위한 것만큼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며, 자신이 행위한 것만큼 엔트로피는 변화되는 것이다.

평화와 자유와 평등이 충만한 진실된 사회를 구현하여 엔트로피의 증가를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런 사회는 사부대중이 다함께 노력할 때만 이뤄질 수 있는 극락세계인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문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제트 1, 제트 2 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폐 비닐·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원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냄새' 없이 완벽하게 소각·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트1, 제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블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제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 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회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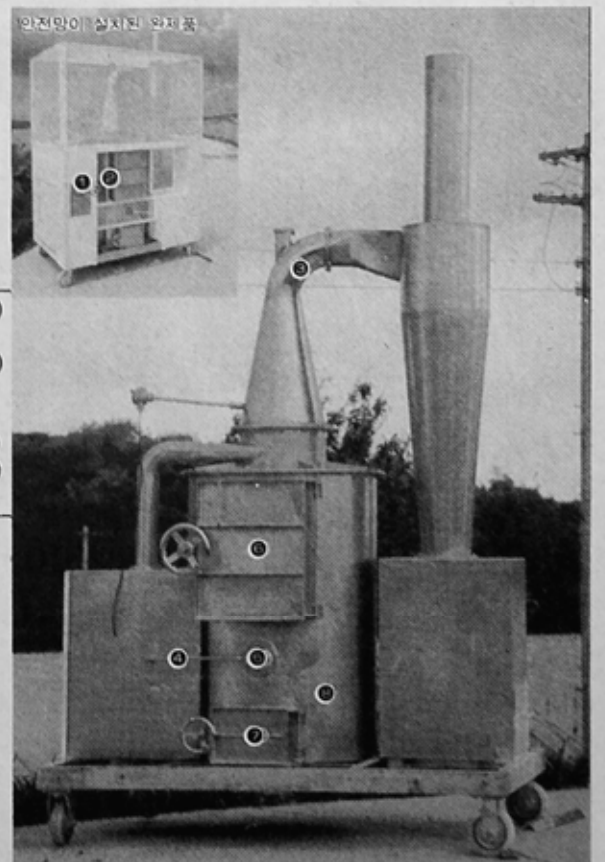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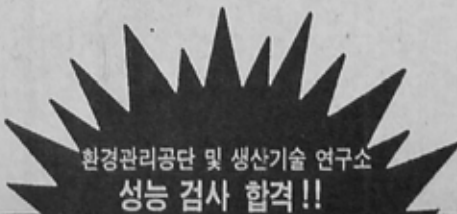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불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 94-8644 의정특허출원 94-8470, 8471, 8472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

본사·공장: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1
전화: (0344) 64-7236, 62-3488
팩스: (0344) 62-7012



- ① 화기(기판식)
- ② 공기(기판식)
- ③ 인건(기판식)
- ④ 냉각(기판식)
- ⑤ 냉각(기판식)
- ⑥ 투입(기판식)
- ⑦ 배출(기판식)
- ⑧ 소각(기판식)